

# 비정규직 대책 시행안에 따른 조리종사원 근무조건 개선 효과 검토

이미정<sup>\*1</sup> · 박상현<sup>2</sup> · 주나미<sup>2</sup>

<sup>1</sup>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sup>2</sup>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전공

학교 급식의 양적인 성장만큼 학교 급식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크게 증가하여 2004년도 학교급식실행황에 의하면 전체 학교 급식종사자 70,902명 중 59,679명이 비정규직으로 종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부천시 지역의 초·중등학교 조리종사원 285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대책 시행 후 급식관리에 따른 근무조건 상황을 파악하여 근무여건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인사관리에서 퇴사원인을 업무가 힘들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또한 이직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임금관리에서 월 평균 급여는 6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고 업무량에 대해 보수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현 보수체계가 의욕상실, 퇴사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복리후생관리에서 장기휴가의 실효성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단기휴가도 사용하기 힘들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의사소통관리는 불편사항이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높았고 작업관리의 전반적 문제점으로 과도한 업무량을 지적하였다. 안전관리는 조리종사원 직업의 종사 후 건강이 악화되었고 일과 후 피로도가 높다고 응답하였다.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은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었고 향후 처우개선으로 가장 바라는 사항은 보수였다.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은 실질적인 특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에는 무엇보다도 보수가 강도 높은 노동에 맞게 책정되어야 하고 조리종사원의 근무 조건이 현실성 있게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담당자 : 박상현

\* Tel : 02-710-9471

\* 휴대전화 : 017-416-3275

\* Fax : 02-710-9479

\* E-mail : bluei7978@hanmail.net